

잊을 수 없는 일본 유학 생활

경북대학교

박예린

학생 시절부터 목표해왔던 도쿄에서의 교환 유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차노미즈 대학에서의 유학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던 만큼,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차노미즈 대학의 교환 유학생으로서 느꼈던 것, 잊지 못할 추억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노미즈 대학은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유학생 과목을 수강하며 일본어 실력은 물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교실도 행해졌는데, 특히 유카타 교실에 참여해 일본 전통 복장을 직접 입어볼 수 있었어서 뜻깊었습니다. 또한, 여러 교류회에서 오차노미즈 학생들을 만나 함께 빙수나 타코야끼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덕분에, 교환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과 학업도 중요하지만, 틈틈이 일본의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며 모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일본의 음식을 먹어보고, 축제에서 불꽃놀이나 미코시 행진을 보기도 하고, 신사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관광객이 많지 않은 곳에서 현지인들의 생활을 엿보기도



하고, 나고야나 삿포로에서 도쿄와는 다른 도시의 풍경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유학 생활 동안, 이 에세이에는 전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다녀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을 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걱정과 달리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가 아닌,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와라 선생님들 비롯한 모든 오차대 선생님들, 유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튜터 나츠키상을 비롯한 오차대 학생들, 함께 놀러다니며 일본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늘 배려해줘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교환 유학생들, 같은 유학생으로서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줘서 고마웠고,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어울릴 수 있었어서 즐거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과 경험을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